

6.15의 궤도는 관계개선의 길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이 시각에 북남관계는 여전히 칩체의 깊은 수렁속에 빠져 한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있다. 분렬의 년륜은 또 한돌기 닮새겨져 70년을 가까이 하였고지만 불신과 대결이 아직도 지속되고있는것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이 한해를 돌아다보면서 겨레 누구나 세해에는 북남관계가 바른 궤도에서 전진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자면 6.15의 궤도에 다시 들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분렬 반세기여만에 만들어낸 기적같은 통일성과물이다. 사상과 제도도 다르다고 대결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데 6.15의 진수는 오늘도 겨레를 감동시키고 통일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6.15통일시대

만큼 우리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희망을 표상오르가 아니라 현실로 보여준 때는 일찌기 없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실과 희망을 안겨준 민족사적경사였으며 통일운동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6.15통일시대는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사상과 정경, 신앙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광범한 각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켰다. 6.15와 8.15 등 주요제기들에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인천 등지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열고 겨레의 통일외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남공동자들의 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북과 남의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자,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들의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들이 광범히 벌어졌다. 북과 남의 작가들이 2005년 처음

으로 평양에 모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그 다음해에는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2005년 3월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전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우리 민족은 겨레의 통일외지를 힘있게 하나로 결합시킬수 있는 강력한 조직적추진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과 남, 해외가 3자련대를 적극화하면서 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6.15통일시대는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다. 6.15가 열어준 길로 2000년 8월 남조선연론사대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 조선노동당창건 55돐을 계기로 남조선의 14개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2002년 9월 공화국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에 나가 통일외지를 고조시키고 2003년 제주시에서 민족

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과 하나로 합쳐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해불로 타올라 온 겨레를 격동시키었다.

6.15이후 북남사이에 체육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졌으며 공화국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 남조선의 《KBS》교향악단과 《MBC》공연단의 평양방문공연을 비롯하여 북남예술인들의 합동공연과 합동연주회 등 통일음악무대들도 펼쳐졌다. 2005년에는 수많은 남북동포들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고 남조선의 한 녀성이 평양산원에서 딸을 낳은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북남사이에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고 수십년간 끊어졌던 도로와 철도가 이어지는 골짜기는 한때도 펼쳐졌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이 이날이 확대되어 수많은 남북동포들이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보고

통일의지를 가다듬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협력사업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산 증거였다.

그야말로 6.15이후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크게 전진하였으며 북남관계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범의 역사와 기적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온 겨레는 이 날에 6.15공동선언의 거대한 생활력을 페부로 느끼었으며 6.15통일시대를 출기차게 이어가는데 길에 평화와 통일이 있고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것이 리명박 《정권》 5년간에 풍지박산나고 이 땅에는 대결과 전쟁의 차디찬 칼바람만이 불어왔으니 엄정한 대외정책을 그 무엇으로 썼을수 있으며 또 보상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가 누구이든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화해, 협력의 바란다면 6.15공동선언실천외지를 명확히 밝히고 공동선언외행에 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한영수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입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민심의 배격을 받고 겨레의 증오를 받는 산 정치상황에 불과하다. 집권기간이 불과 몇달밖에 남지 않은 그가 권력을 내놓은 후 전두환처럼 력사의 법정에 서고 백담사에 은둔할지, 아니면 감옥에 끌려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가 이처럼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의 후과이다. 최는 지은대로 가가마련이다.

돌이켜보면 리명박 《정권》의 지난 5년은 북남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악몽의 5년, 재난의 5년이였다.

6.15시대와 더불어 기세 좋게 발전해오던 북남관계에 제동이 걸린것은 리명박 《정부》가 등장해서부터였다.

동족적대적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리명박보수당국

은 집권초기부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였다. 리명박보수당국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 문서》, 《부도남수밖에 없는데 약속어음》으로 모독하였는가 하면 민족통일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를 《폐쇄된 민족주의》라고 헐뜯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북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렸으며 《비핵, 개방, 3 000》이란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동족과의 대결만을 고취해나갔다.

리명박 《정부》는 《북이 기다리면 무너질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외세와의 공조에만 더욱 매여달렸으며 동족이 당한 대국상을 기화로 어떻게 하나 북의 내부를 혼들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을 구실로 북남경제협력의 육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사업을 차단짓것,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을 계기로 악명높은 《5.24조치》를 발표시키

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것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바로 그들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굵은 더욱 깊어졌으며 정세는 전쟁문턱에까지 다달았 되었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5년을 철폐하면서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던 6.15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의 력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지속시키는가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지금 이 시각 온 겨레가 바라라는것은 북과 남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다.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겨레의 이러한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리명박 《정권》이 추구한 어리석은 동족대결정책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김원일

파멸에 직면한자들의 발악은 광증을 낳는 법이다.

그것은 집권기간 반인민적, 사대매국적정책과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린것으로 하여 민심의 증오의 표적이 된 남조선보수당국이 그로부터의 출로를 정세격화와 북침전쟁에서 옹호면서 특대형도발을 약탈하게 감행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리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민족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해왔다는것은 공포로된 사실이다.

《인공기표적》 사건,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다년간 《구조해탈수박》 사건, 사적정에서의 최고존엄표적사건 등은 수십년간의 북남관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대형도발행위들이었다.

민족의 어머니를 뺏아도 있고 겨레가 비분에 몸부림치고있을 때 가스롬게도 허황한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갖은 못짓을 다한 회색의 매론아, 천하의 불망종들이 바로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이었다.

이처럼 동족에 대한 극단한 적대적이 골수에 배긴 자들이기에 올해에도 특대형

도발행위들을 잇달아 감행하였다.

지난 3월 인천시에 주둔해있는 남조선군불한당들은 부대건물의 벽과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천하무도한 망랑짓을 벌려놓았다.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환희속에 대양절 100돌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된것과 관련해서도 유독 리명박보수집단만은 《잔치비용》이니,

심술사나운 리명박보수집단은 이때에도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의도적연출》이니, 《환심성행사》이니 하며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폈는가 하면 리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이들을 《모따당아아들》, 《세상을 장르는 철부지》라고 모독하며 몰상식하게 놀아냈다.

올해에 들어와 리들이 감행한 리명박보수당국의 특대형적대행위는 공화국의

념비들을 파괴하기 위한 암해책동을 감행한것이다.

이처럼 리들이 감행된 특대형도발행위들은 그야말로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대결관념이 골수에 짙들어차고 반공화국도발에 환장한 자들만이 벌려놓을수 있는 허세대리적행위였다.

력대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이에 반북과 질시, 적대와 충돌을 조장시키기 위해 모략과 대결에 광범한 역적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리명박보수집단처럼 그토록 불순한 흉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체

제를 중상모독하며 특대형도발에 매여달린 지독한 대결분자, 악명높은 특등호전광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리명박보수당국의 치밀리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으로 북남관계는 력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정치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 이르게 되었다.

동족에 대한 극단한 적대감과 어리석은 《체제통일》 야망에 몰렸어 북남관계를 완전결판하고 민족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리명박보수당국의 죄행을 온 겨레는 잊지 않을것이며 두고두고 질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겨온 남조선당국은 《5.24조치》를 발표하고 《북이 3억US\$의 벌금을 무는셈》이라고 으시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5.24조치》의 결과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조사하던 수백개에 달하는 남조선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경영위기에 상태에 처해있다.

령세상인들과 중소기업가들이 빚투족에 시달라다 못해 세상을 하직하고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우는 비참한 현실이 바로 《5.24조치》가 가져다준 고통과 불행이다.

특히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은 북남화합과 협력사업의 육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집권하기 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이 마치 그 누구의 《자금지출》인것처럼 사실을 오토하면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다.

그후에도 공화국은 남조선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최고위급에서 담보하였고 관광객을 위해 할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관광이 중단된 때로부터 4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3대조건》이라는것을 앵무새마냥 외워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방해책동으로 인해

10년세월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찾았던 금강산관광길이 막혔고 관광시설들과 건물, 설비들이 부패부식되고있다. 또 금강산관광의 혜택을 누리던 남조선강원도의 인민들이 고통속에 헤매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기간 흠이던 가족, 친척상봉사업을 비롯한 인도주의사업마저 저들의 대결정책실현에 리용해왔다. 하여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12만명을 넘는 상봉신청자 가운데 5만여명이 그리운 혈육들을 만나보지 못한채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저주하며 한탄은 세상을 떠났다 한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은 공화국의 체제와 일심단결을 헐뜯다 못해 감히 최고존엄을 모독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보수매당은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서 피눈물을 뿌리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돌려대고 슬픔에 몸부림치는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남조선군부와 인간쓰레기들을 베라살포와 라지오방송과 같은 심리모략전에 내모는 보수매당의 대결정책에 의해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총포탄이 오갈번한 일촉즉발의 참예한 정세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군부호전광들의 도발책동으로 인해 남조선 리명박 《정부》 집권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충돌도 발생하였다. 만약 남조선당국의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인 삼천리강토는 무참히 파괴되고 우리 겨레에게는 헤아릴수 없는 재난만이 강요될것이다.

오늘의 북남관계파국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만을 가져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동족대결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통과 불행의 하근이라는것을 현실로 증명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장애물

극도에 이른 대결책동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이니 하며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약탈하게 헐뜯었다.

돈밖에 모르는 너털한 시정배부리인 리명박보수집단은 지어 《우리 식대로 살어나가자!》는 구조까지 시비하면서 《핵포기》와 《개혁》, 《개방》, 《변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체님께 놀아냈으며 국우보수언론들을 내몰아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불망나니짓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6월 민사함을 격동시키며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히 펼쳐진 조선소년단창립 66돌경축행사와 관련하여 벌어진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도발사동은 또 어떠했는가.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국가정치체로행위로 극도에 이르렀다.

지난 7월 공화국에서는 동상과 대기념비들을 파괴하려던 적대암해분자가 적발체로 되었다.

제시된 모든 인적, 물적 증거들과 체포된 범죄자의 진술을 통하여 국악무도한 특대형테러행위와 매후에 리명박 《정권》과 미국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집권초기부터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집요하게 떠들며 반공화국내부와해책동에 매달려온 리명박 《정권》이 끝끝내 월남도주자들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침투시켜 공화국의 동상과 대

그 결과 《조중동》에 차례진것은 인민들의 불신과 배격이었다.

민의를 저버린 《조중동》의 미래는 자명하다.

오늘은 판매부사 절반으로 줄었지만 매일은 아예 구매자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른다.

신문명종의 위기를 모면하려거든 이제라도 《조중동》은 남조선의 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권지혜

그 결과 《조중동》에 차례진것은 인민들의 불신과 배격이었다.

민의를 저버린 《조중동》의 미래는 자명하다.

오늘은 판매부사 절반으로 줄었지만 매일은 아예 구매자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른다.

신문명종의 위기를 모면하려거든 이제라도 《조중동》은 남조선의 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권지혜

도과정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리명박보수 《정권》이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철저히 신변안전담보》를 계속 떠드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그것이 관광을 막기 위한 생트집이어서는 안된다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까지 부리었다.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특히 2009년 8월 현 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납속관광객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일대 관광국을 벌려놓고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이것이 리명박 《정권》의 고의적인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와 관련한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인기 잃은 《조중동》

지난 14일 남조선의 한 협회는 대표적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판매부수가 감소되고있다고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10년전인 2002년에 비하여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절반 수준으로, 《조선일보》는 수십만부나 감소되었으며 현재에도 이 신문들은 한달에 2만부씩 줄어들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응당한 결과이다.

《조중동》이 과거 군부독재시기에도 그러했지만 리명박과 《새누리당》의 집

권 5년간에도 언론본연의 사명인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을 집어던지고 보수매매, 권력의 어용나팔수노릇을 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5년이 보여주듯이 《조중동》은 보수집권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민간인불법사찰, 내국동사건 등 리들이 불거져나오는 각종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을 눈감고 이용하는 식으로 몇출짜리 기사로 보도하였다.

반면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색갈론》공세를 집요하게 벌려 《신매카시즘》광풍을 유도하였으며 날조되고 위곡된 반북모략선전으로 대중의

과과 귀를 혼란시켜왔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조중동》을 《MB의 우로 줄었지만 매일은 아예 구매자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른다》.

신문명종의 위기를 모면하려거든 이제라도 《조중동》은 남조선의 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권지혜

과과 귀를 혼란시켜왔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조중동》을 《MB의 우로 줄었지만 매일은 아예 구매자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른다》.

신문명종의 위기를 모면하려거든 이제라도 《조중동》은 남조선의 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권지혜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원흉 (6)

금강산관광길도 막아

전교육과 사고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남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명박보수당국은 사건의 구체적경위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일대 관광국을 벌려놓고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이것이 리명박 《정권》의 고의적인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와 관련한

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특히 2009년 8월 현 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납속관광객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일대 관광국을 벌려놓고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이것이 리명박 《정권》의 고의적인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와 관련한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당국의 부당한 언론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내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남조선에서 진행

된 《대통령선거》에서 치열한 접전끝에 《새누리당》 후

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원흉 (6)

금강산관광길도 막아

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특히 2009년 8월 현 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납속관광객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일대 관광국을 벌려놓고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이것이 리명박 《정권》의 고의적인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와 관련한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조중동》을 비롯해 한 보수제법언론이 신문시장독점률의 75%를 차지하고 방송사까지 차려놓을수 있게 하였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한다면 관광객사건은 금강산에 남조선인원이 북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빛어낸 불상사이다. 당시 그 물에는 신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할 판



지금 온 겨울은 인공 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성공 소식으로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광명성-3》호와 행운의 수 12

요즘은 거처에서도, 버스 안에서, 집에서 온통 위성성공에 기쁨이다. 그중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며 위성이 날아오른 날이 2012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은 사람속에서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그렇다도 하다. 수가 12가 하나가 아니라 세번이나 겹쳤으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해와 달, 날의 일치이다. 이 특이한 날에 인공지구위성을 쏘 올려 완전성공시킴으로써 겨울의 기쁨과 웃음을 더해 주었다.

에 담아 노래불렀고 폭포가 하도 길어 금강산 외금강의 12폭포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이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그 유명한 《수성청야전술》로 30만여명이나 되는 적군을 살수에 수장해버림으로써 대승리를 안아온 동자들이 자랑찬 승리를 거두고 사죄하러 온 일본사 무라이들에게서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임신약조》를 받아낸 해도 다름아닌 1512년이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자주로선의 승리이고 최첨단에 올라선 과학기술의 승리이며 한다면 하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조선의 드센 담력과 배짱의 승리이다. 바로 그 승리의 날은 신기하게도 2012년 12월 12일이다. 중국 대륙에서 사는 조선동포인 김예순은 《예로부터 12라는 수자는 길수로 전해 내려온다. 이 12라는 수자가 세번이나 겹친 행운의 날에 조국에서 또다시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건이 일어났으니 오늘이야말로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날이다. 우리 조국이 정말 대단하다.》며 기쁨을 터쳤다.

이런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위성발사는 국제조약이 밝히고있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하지만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조선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이 《제재》와 《요격》을 부르짖으며 압박과 위협행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게다가 날씨가 제일 추운 겨울에 발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이 위성발사를 다음해로 미루지 않겠는지, 혹시 발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겠는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행성에 떠돌았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기한내에 무조건 결사 관철하려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 군인들의 결심과 의지를 헤아려 인공위성을 12월 12일에 발사하도록 명령을 주시고 해당 문건에 이렇게 친필을 남기시었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2. 12. 12》

이렇게 우주로 치솟은 운반로켓은 9분 27초만에 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이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이께서 1년전 온 나라가 통곡하던 피눈물의 12월이 자랑찬 승리의 12월로 이어졌다. 행운의 12와 더불어 기쁨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장엄한 승리의 축포로 마감한 공화국은 밝아오는 2013년에도 더 큰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질풍같이 내달릴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 주었다

—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해외동포들의 반향 —

조국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와 관련하여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서방나라들은 조선이 위성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면서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닦뚱된 개신세가 되고말았다. 이번 위성발사로 조국은 세계 앞에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다.》(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국장)

《조국에서 위성성 성과를 발표했다고 하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으로부터 한 평생 선군길을 걸으면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쌓아놓으신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대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리미일, 재미동포)

《오늘의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조국은 믿음을 모른다. 이것은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전 해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성공적으로 쏘올린 것은 온 인류를 놀라게 할만한 일이다.》(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부장)

《조국에서 위성성 성과를 발표했다고 하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으로부터 한 평생 선군길을 걸으면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쌓아놓으신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대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리미일, 재미동포)

《조국에서 위성성 성과를 발표했다고 하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으로부터 한 평생 선군길을 걸으면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쌓아놓으신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대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리미일, 재미동포)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더듬어보면 우리 민족은 수가 12를 가장 크고 더불어 길수로, 행운의 수자로 간주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12라는 수자를 가장 크고 좋다는 의미로 널리 통용해왔다. 벌이 넓으면 열두삼천리 벌이요, 집이 크고 요란하여 열두대문, 산이 크고 봉우리가 많아 1만 2천봉이라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도 수가 12는 행운의 수, 승리의 수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퍼올린 강선의 로동자들이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그 두배인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 세상을 놀래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의 역사에 자랑찬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자주로선의 승리이고 최첨단에 올라선 과학기술의 승리이며 한다면 하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조선의 드센 담력과 배짱의 승리이다. 바로 그 승리의 날은 신기하게도 2012년 12월 12일이다. 중국 대륙에서 사는 조선동포인 김예순은 《예로부터 12라는 수자는 길수로 전해 내려온다. 이 12라는 수자가 세번이나 겹친 행운의 날에 조국에서 또다시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건이 일어났으니 오늘이야말로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날이다. 우리 조국이 정말 대단하다.》며 기쁨을 터쳤다.

이런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위성발사는 국제조약이 밝히고있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하지만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조선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이 《제재》와 《요격》을 부르짖으며 압박과 위협행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게다가 날씨가 제일 추운 겨울에 발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이 위성발사를 다음해로 미루지 않겠는지, 혹시 발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겠는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행성에 떠돌았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이께서 1년전 온 나라가 통곡하던 피눈물의 12월이 자랑찬 승리의 12월로 이어졌다. 행운의 12와 더불어 기쁨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장엄한 승리의 축포로 마감한 공화국은 밝아오는 2013년에도 더 큰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질풍같이 내달릴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인공지구위성발사소식에 접하고 기뻐하는 모습

선군조국에서 사는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한 공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름은 고월성, 하늘아래 첫 등대로 소문난 량강도 대동단군에서 군인민병인 약제사로 일하는 그는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수수한 녀성이다. 그러나 그가 거둔 과학역

애국의 마음 안고

구성파는 평범하지 않다. 얼마전 그는 오래동안의 고심 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우리나라에 흔한 약초로 혈액순환제에 특효를 나타내는 궁궁이혈전주사약을 새로 개발하여 국내특허를 받았다.

이렇듯 평도자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기고 애국의 값진 열매

이 바로 공화국의 공민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이 바로 공화국의 공민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탐구의 기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4년 가을, 고월성녀성은 협하기로 소문난 북포레산과 판모산, 대로산 등을 오르내리며 살살이 훑고있었다. 손과 얼굴이 가시덤불에 찰퀴우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면서 1000여m의 산밭들을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속에서 고대전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궁궁이약초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궁궁이(일명 천궁)의 뿌리출기는 피가 잘 돌게 하고 머리아픔, 어지럼증, 고혈압 등 혈액순환기질병치료에 효과가 큰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치료에 널리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평도자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기고 애국의 값진 열매

이 바로 공화국의 공민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이 바로 공화국의 공민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어머니조국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아글라글 애쓰는 고월성녀성과 같은 애국자들이 이 바로 공화국의 공민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말마전 송이씨가 엮은 꽃다발을 정히 안고 만수대덕으로 오르는 한 처녀가 있었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명절날, 생일날, 설날에도 사진 한장 찍지 못하고 지내던 제가 오늘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있어 희망의 푸른 꿈을 안고 드넓은 세상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누구나 손에 땀을 쥐고 수술장을 지켜보는 속에 긴장한 한 초한초가 흘러갔다. 드디어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수술의 정확한 성공여부를 알자면 아직 많은 시일이 필요하였다.

다시 찾은 모습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몇달동안 미용외과 의뢰일꾼들은 수술후 몸관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일과 같이 관상군에 사는 해당부서 일꾼들과 연계를 가지었다. 그러던 어느날 성임은 전화로 구강종합병원 미용외과 의뢰일꾼들을 찾았다. 《이제 정녕 꿈은 아님니까. 슬겜이 완전히 열렸습니까.》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생각할수록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고려약을 더 많이 만들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자책감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계시는 어머니장군님을 그리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험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탐구의 길이었지만 후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고월성녀성 (왼쪽에서 세번째)

이런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위성발사는 국제조약이 밝히고있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하지만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조선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이 《제재》와 《요격》을 부르짖으며 압박과 위협행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게다가 날씨가 제일 추운 겨울에 발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이 위성발사를 다음해로 미루지 않겠는지, 혹시 발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겠는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행성에 떠돌았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요리경연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급양봉사부서 각, 관료리경연은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과적질병의 근원을 없애면서도 미용학적인 얼굴성형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애국의 뜻 어진 친필비

평양민속공원의 큰 대문에 들어서면 먼저 《평양민속공원》이라고 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친필비가 안겨온다.

민속공원 현철수 학술부원장은 말하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어 지도해주시는 평양민속공원에 그이의 친필로 된 건립비를 모시고싶은 소망을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민속공원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건설되었고 그이의 영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렸다는 것만큼 장군님의 친필로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이름떨었던 고구려의 옛 궁터를 비롯한 역사유적이 많은 대성산기슭에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한 평양민속공원이 일떠섰다.

오늘 평양민속공원으로는 수많은 해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깊은 관심과 정을 안고 찾아오고있다.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민족의 자랑인 평양민속공원에 복원되어있는 역사유적유물들을 소개한다.

백두산위인의 기상이 력력히 어려웠고 그 기상이 단숨에 삼천리강산에 뻗쳐가듯 한 명필체였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한 평양민속공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내놓으신분은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2008년 12월의 엄동설한에 사리원민속거리를 돌아보시며 평양민속공원을 일떠세울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공원을 규모와 내용, 형식이 있어서 훌륭하게 건설하시려고 해당 부문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공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귀중한 애국유산인 평양민속공원은이다.

본사기자 박 단 희 (다음호에 계속)



태양동기극궤도를 도는 《광명성-3》호 2호기

얼마전 공화국에서 성과적으로 발사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태양동기궤도를 따라 돌고있다.

지구관측위성은 지구주위의 우주공간궤도를 돌면서 지구표면이나 그것을 둘러싼 대기를 촬영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미전에 공화국에서 쏘아 올린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는 시험위성들이였다. 《광명성-2》호가 궤도경사각이 40.6° 인 경사궤도위성이였다면 과학기술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는 극궤도위성이다.

《광명성-3》호 2호기와 같은 극궤도위성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상공을 지나는 위성이다. 이때 궤도를 잘 선택하면 지구가 태양주위로 돌아갈 때 인공지구위성의 궤도면이 항상 태양방향에 향하게 할수 있다. 이런 위성이 태양동기위성이다.

인공지구위성을 지구의 적도상공 약 36 000km 높이에 쏘아올리면 그 회전주기가 24시간으로서 지구자전주기

와 같아지게 된다. 지구에서 볼 때 이 위성은 적도상공의 한자리에 늘 정지하여 있는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것이 정지위성이다. 이 경우 적도상공에 완전히 정지되어있지 않고 북남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일수 있는데 이것을 지구동기위성이라고 한다.

태양동기궤도나 정지위성궤도는 가장 특이하면서도 제일 많이 이용되는 궤도들이다. 이 궤도들은 기술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궤도로서 해당 나라의 우주기술발전정도를 가늠해볼수 있는 척도로 되고있다.

태양동기궤도를 도는 위성들 가운데는 지구관측위성들이 많다. 그것은 위성을 설치된 기체들이 대상물을 촬영하는데 좋은 빛조건이 보장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위성으로 전지구를 촬영할수 있기때문이다. 극궤도위성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 사이에 지구는 그 시간만큼 회전한다. 그러므로 위성은 일정한 거리간격을 두고 해당한 쪽으로 지

구를 촬영하게 된다.

태양동기궤도궤도위성으로 되자면 궤도경사각이 90° 보다 약간 커야 한다. 《광명성-3》호 2호기는 궤도경사각이 97.4° 인 태양동기궤도위성으로서 첨단급에 속하는 인공지구위성이다.

본사기자

우리 말 상식

《괴곤》과 《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서로 뜻이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괴곤은 잠을 못자거나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것을 말한다.

예: 너무 괴곤하여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괴로는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프거나 괴로와진

상태를 말한다.

예: 며칠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다가 괴로가 겹쌓였다.

괴곤은 단순히 잠이 모자라서 지친 상태이므로 자고 나면 풀리지만 괴로는 휴식 없이 일하여 지친 상태이므로 잠을 자는것과 함께 일정한 기간 안정해야 풀린다는 데 차이가 있다.

단편 소설 6.15의 봄빛 (4)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에 주시던 근엄한 시선을 다시 손에 드신 편지지우에 떨구시였다.

《어제 우리 학급 초급단체에서는 오빠의 원수를 갚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장으로 토론하면서 인민군대입대를 열렬히 찬원했습니다. 이것이 며칠받고 민굴에 내린 결심이고 더는 참을수 없는 증오의 폭발을 가져왔을거라. 장군님, 저의 입대를 찬성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저를 음악대학에 보내주시면서 (예술이 편안한 자리가 돼서 그리구 항일투사의 손녀라고 해서 보내는건 더욱 아니다. 천성이 있기때문에 공정하게 보내는거다. 넌 어렸을 때부터 성악과 무용에 남다른 특기를 가지고있어 해마다 진행되는 설악이공연 때마다 어머니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장군님, 오빠를 잃고보니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초소에 당을 받들 생각은 많으나 세계무대에 나설 야심으로 반담 노래춤에만 묻혀 살아는 저야말로 얼마나 철부지소녀입니까. 더우기 할머니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며 같이 자란 오빠를 이젠 영영 볼수 없고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고 잠을 잘수 없습니다.

장군님, 오빠가 있던 바다 초소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춤을 잡지 못한 청춘을 어찌 선군시대의 청춘이라고 하겠습니까.

《허허...》

불현듯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을 터치시였다. 군대에 가겠나? 이젠 다 자랐다는, 철이 다 들었다는 기특한 생각이 드시였다. 하긴 자기 앞길을 자립적으로 개척해나갈 나이

가 된것이다. 그것이 기쁘시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가복한 청년이지만 너무 단순하고 어이없는 제기가기도 했다.

(춤을 잡지 못하면 선군시대의 청춘이 아니다?)

그 견해에는 공감이가 되지 않고 부정하게 되시였다.

(허 참, 선미야, 넌 뭔가 잘못 생각하고있구나. 그래선 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걸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나, 아니면 입대를 정당화하려 그래보시나.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백두산에서 싸울 때 총과 함께 노래와 춤을 가지고 일제를 쳐부시고 인민들을 깨우쳐 혁명투쟁으로 불려일으키지 않았느냐. 만강에서 너의 할머니랑 내대원들이 《피바다》 공연을 하여 인민들을 반일전으로 일떠세우고 김금순이랑

아동단원들이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중국인반일부대에 들어가 총과 노래로 반일공동전선을 펴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말이냐? 아니다. 넌 정말 잘못 생각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선미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며 다음 글줄을 더듬어보시였다.

《저의 토론이 끝나자 너도나도 연단에 달려나가 열변을 토하면서 입대를 찬원 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학급전원이 입대를 찬원하는 편지를 장군님께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광택한 기색을 지으시였다.

(허허... 이것 참 야단이잖군. 학급전원이 책상을 떠나 총을 메겠다? 청년조직의 결정이라니 편지가 올라오라와 의지한 전사들의 증오와 분노로 하여 천백배도 굳어졌을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끝없이 깊어가는 사색의 세계에 침취되시였다. 그러시다가 선미의 편지에 손자를 잃은 교회순

의 슬픔과 건강상태가 띄여 있지 않음에 하여 다시 글줄에 시선을 떨구시였다.

《장군님, 할머니건강은 넘버마시옵소. 할머니는 오빠의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까. 눈이 퉁퉁 부어오른 제가 너무 이상하여 (할머니 슬프지 않나?)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이년아,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울고싶어도 장군님생각에 울지 못한다. 나야 제 손주 하나 잃었지만 애지중지 키우신 전사들을 잃은 장군님의 심정을 어떻게... 반일공동전선을 펴느라 수령님께서 리광동지랑 술한 동지들을 억울하게 잃고 그 아픔을 생애의 말년까지 목숨까지 못하였는데 이 할미가 눈이 퍼렇게 살아가지구 그런 아픔을 오늘엔 장군님께 없어드렸으니야, 이 죄 막중하구나.》 하며 가슴을 두드렸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쩍 울리어 고개를 드시고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햇빛이 가득차 빛나는 여름날의 맑은 하늘이 어찌하면 저리도 무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1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5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 강의제목: 1)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러모실 결출한 최고사령관이다
-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형의 위인으로 받아들여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
- 강의시간: 1) 1강의
- 2) 1강의
- 송출날자: 1) 주체101(2012)년 12월 24일
- 2) 주체101(2012)년 12월 24일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 강의제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은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신 백두산형의 장군이다
- 강의시간: 1강의
- 송출날자: 주체101(2012)년 12월 29일
-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대한 정서

지난 11월 30일 사랑들에게 눈에 대한 정서를 불려일으켜주며 첫눈이 내린 이후 평양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눈이 내렸다.

눈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때문에 역사적으로 눈과 관련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설날밤에 세번만 눈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옛날 시에 눈을 《륙출화》, 《륙화》라고 미화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눈의 결정이 여섯모이기때문에 여섯모의 꽃이라는 뜻이었다. 시집갈 때 쓰는 족두리장식에도 《륙출화》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을 담고있다.

속담에 《함박눈이 내리면 따뜻하고 가루눈이 내리면 추위질 징조》라고 한것은 눈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지혜롭게 예상할수있다.

그것은 상층대기의 온도상태에 따라 눈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온도가 낮을 때에는 가루눈이 내리고 온도가 높을 때에는 함박눈이 내리기때문이다.

눈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는 눈싸움과 눈사람만들기가 있다. 눈사람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추위를 극복하고 체력을 단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같은

편끼리의 단결력을 키워주는 좋은 놀이로서 예로부터 아이들이 즐겨하였다.

눈사람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한겨울의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눈섭이 우습고나 코도 빼빼고

거울을 보여줄가 꼬마 눈사람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눈을 류달리 좋아하여 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락천적인 생활을 해올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과 관련된다.

본사기자

